한동대학교 제11대 대학평의원회
2026년 제3차 회의

(제 3차 회의록)

구 분	평의원
의원정수	11명
재적인원	11명
참석인원	8명

□ **회의 일시 :** 2026. 11. 4.(수) 10:00

□ **회의 장소 :** 현동홀 204호(비전회의실)

□ **성원**

1. 참석자 (8명): 김혜정 의장, 김창욱 부의장, 권용성 의원, 나윤숙 의원, 최혜봉 의원, 남궁윤 의원, 권명숙 의원, 김주왕 의원
2. 불참자 (3명): 김지현 의원, 민준호 의원, 최임성 의원
3. 배석자: 예산조정팀 구경훈 팀장, 장도희, 대학원 교학팀 김철한 팀장, 김윤영 과장, 국제법률대학원 최진국 팀장, 교무처 미래교육혁신팀 송인혁
4. 회의록 작성: 정안순(전략기획팀)

□ **회의 안건**

○ 2026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(안) 자문

○ 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심의

○ 한동대학교 학칙 개정(안) 심의

□ **심의 및 의결, 자문 내용**

○ **개회**

-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기도로 회의를 시작함
- 의장은 부의장과 협의하여 이번 회의부터 의결을 거수 대신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기로 하였음을 안내함

○ **2026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(안) 자문**

1) 예산조정팀 구경훈 팀장이 해당 안건의 배경 및 내용 설명

- 이번 추경은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중 교비, 대학원, 생활관, 평생교육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되, 국고 및 복지회는 확정된 미사용전기이월자금 반영과 현재까지 변경된 국고의 지출예산을 추경에 반영함
- 본예산에 과대 편성된 등록금 수입과 지정기부금 등을 조정하고, 확정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을 반영하여 지출예산 편성
- 추경의 자금예산 규모는 약 1,455억 원이며, 국고 및 복지회 비등록금회계를 제외

한 예산 총액은 약 610억 원 규모로 본예산 대비 약 25억 원 증가함

- 등록금회계는 본예산 약 343억 원 대비 약 328억 원으로 15억 원 감소함

2) 대학평의원 발언

- 추경 실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, 추경은 통상 회계연도말 연 1회 실시하나 올해는 본예산의 등록금 수입 과대 편성, 예비비 소진, 기금 및 기부금 조정 등을 위해 추경 실시하게 되었다고 답변함
- 등록금 수입 추계 차이의 원인과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,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촉박한 편성 일정이 영향을 주었으며 2027회계연도 본예산은 편성 일정을 앞당겼다는 답변이 있었음
- 상담센터 등 학생 지원 부서의 예산 요청이 무게 있게 반영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음

⇒ 2026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(안)에 대한 자문을 마침

○ 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심의

1) 대학원 교학팀 및 각 대학원 담당자가 해당 안건의 배경 및 내용 설명

- (일반대학원) 글로컬대학사업에 따라 석사과정 에너지융합학과를 신설하며, 석사과정 입학정원(72명) 내에서 신설하므로 정원 변동은 없음. 전임교원은 관련 학부 교수의 겸직으로 구성함
- (일반대학원)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(TOEIC 700점 기준)을 폐지하고, 영어 능력은 입학 단계에서 학과별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함
- (국제법률대학원) 교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적평가 백분위 점수 구간을 조정함
- (교육대학원) 입학정원 감축(20명 → 15명), 수업연한 단축(2년 6개월 → 2년), 수료학점 축소(30학점 → 28학점) 및 무논문(과정이수형) 과정으로 전환함
- (국제개발협력대학원) 테크노융합학과는 외국어시험을 적용하지 않고 종합시험만 적용하며, 국제개발협력학과는 현행대로 유지함
- (통역번역대학원) 종합시험 응시자격 기간을 수료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여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함
- (국제경영대학원) 신입생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국제경영대학원의 학사조직을 폐지함

2) 대학평의원 발언

- 에너지융합학과 겸직 교수와의 협의 여부와 예상 모집 인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, 관련 교수와 협의를 마쳤고 첫해 최대 10명 모집을 목표로 한다는 답변이 있었음
- 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폐지가 대학원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질의에

대해, 졸업 단계의 영어 성적 요건이 경력자 등의 학위 취득에 장애가 되어 왔으며 영어 능력은 입학 전형에서 학과별로 확인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

- 국제개발협력대학원과 관련하여, 국내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에게 기초 한국어 시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

⇒ 대학원 학칙 개정(안)을 대학원별로 구분하여 무기명 투표한 결과, 출석 평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의함

○ 한동대학교 학칙 개정(안) 재심의

1) 교무처 미래교육혁신팀 송인혁 담당자가 지난 회의 이후 경과 설명

- 2026. 10. 20. 대학평의원회 이후 교무처는 각 학부에 학생과의 소통을 요청하였으며, 10. 26.부터 11. 2.까지 각 학부에서 학생 소통을 진행함
- AI융합학부는 학생 간담회 2회, 설문조사 1회, 교수회의 1회를 진행하였고, AI컴퓨터전자공학부는 학생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각 1회 실시함
- 학생들은 주로 기존 교육과정, 캡스톤 등 교과목, 전공 기조의 유지를 요청하였으며, 이는 원안의 재학생 경과조치를 통해 유지하도록 되어 있음
- AI융합학부는 학부 교수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고, 시행일을 2028. 3. 1.로 하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함. AI컴퓨터전자공학부는 별도의 학부 의견 없이 학생 의견 조사 결과를 송부함
- 교무처는 대학 본부의 입장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, 학부 명칭의 경우 필요시 총장이 직접 학생과의 소통 의지가 있음을 전달함. 그럼에도 학부 명칭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'AI컴퓨터전자융합학부'로 변경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총장의 제안을 전달함

2) 총학생회장(김주왕 평의원) 의견

- 총장과 학부 대표단의 면담에서 학교의 장기적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, 양 학부 대표 모두 통합하여 규모 있게 운영하는 방향에는 동의함
- AI컴퓨터전자공학부 학생 대표는 학부 명칭을 추후 변경할 수 있고 1년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이 보장된다면 찬성하는 입장이며, AI융합학부 학생 대표는 통합을 서두르는 이유를 아직 납득하지 못하였고 학부생들의 반대 의견이 많아 반대하는 입장임을 전달함
-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학부생들과 총장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갖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함

3) 대학평의원 발언

- 지난 회의 이후 2주간 주요 내용에는 변경된 사항이 없고, 학생 의견 조사 결과 외에 판단에 참고할 추가 정보가 많지 않음

- 원안의 시행일(2027. 3. 1.) 조정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, 교무처는 AI융합학부의 서면 요청은 있었으나, 별도의 변경은 없었다고 답변함
- 학생 의견 조사 결과를 볼 때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통과 시 학생 반발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, 교무처는 기존 교육과정은 유지되고 인공지능전공이 추가되어 학생 선택권이 넓어진다고 답변함
- 교무처는 AI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를 고려할 때 관련 교수들이 같은 조직에서 논의하면 더 나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함
- AI 관련 학부 정비의 필요성은 이전 평의원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음
- AI융합학부가 다른 전공 학생들도 접근할 수 있는 융합교육의 역할을 해 온 만큼, 통합 이후에도 이러한 역할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
- 통합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, 통합 이후의 구체적인 비전과 큰 그림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음
- 학생 의견 조사 결과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다시 의견을 들을 시간이 있었다면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
- 결정을 다시 미루더라도 양 학부의 입장 차이가 해소되기 어렵고 오히려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
- 총장이 우려되는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다루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를 믿고 통합을 추진할지,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면 통합하지 않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검토할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
- 의장은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였으며, 이번 논의도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자고 당부함

⇒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3표, 반대 5표로 한동대학교 학칙 개정(안)에 반대하는 것으로 심의함

의장	김혜정	부의장	김창욱	평의원	권명숙	평의원	나윤숙	평의원	남궁윤	평의원	김지현 <불참>
평의원	권용성	평의원	최혜봉	평의원	김주왕	평의원	민준호 <불참>	평의원	최임성 <불참>		